

# 전기·하이브리드 급증...광주·전남 친환경차 중심으로

### 지난해 전기차 광주 25.4%·전남 31.5% ↑ ...친환경차 4년새 3배 급증 국토부 "전기차 비중 13%...시장 변화 맞춘 정책 대응·통계 관리 강화"

광주·전남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친환경차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자동차 시장의 구조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광주 8만 4518대, 전남 17만 1401대로 전년 대비 25.4% 증가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4만 1322대로 1년 새 31.5% 늘며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전국 전기차 증가율은 31.4%로 전남은 전국 평균과 맞먹는 확산 속도를 보였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광주 8만 4518대, 전남 17만 1401대로 집계됐다. 전남은 1년 만에 4만 2976대가 늘었고, 광주도 1만 6000대 이상 증가했다.

광주 친환경차는 2022년 4만 367대, 2023년 5

만 3748대, 2024년 6만 8198대 2025년 8만 4518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6만 6302대, 6만 9784대, 9만 5811대, 17만 1401대로 4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친환경차가 비율이 13.2%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자동차 시장 소비 구조가 재편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기준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349만대를 넘어 전년 대비 74만 7573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연 기관 차량은 52만 9000대 줄었고 특히 경유 차량은 49만대 이상 감소하며 뚜렷한 구조 변화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도 친환경차 증가세는 강하게 나타났다. 경기 지역 전기차는 20만 7075대로 36.4% 늘었고, 인천은 46.8%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 역시 10만 1331대로 20.8%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 전기차는 38만

8266대로 1년 새 9만 8000대 이상 늘어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영남권과 제주가 두드러졌다. 경남은 전기차가 41.4% 증가해 전국 상위권 성장세를 보였고, 경북도 33.0% 늘었다. 부산은 37.1%, 충남은 30.0% 증가하며 산업·물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전환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 역시 24.6% 증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밀집 지역 지위를 이어갔다.

차량 신규 등록 흐름도 친환경차 유희 현상을 보여줬다.

2025년 한 해 신규 등록된 자동차 169만여대가운데 전기차는 22만 1000대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도 59만대를 넘어 친환경차가 신차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반면 경유차 신규 등록은 8만 6000대에 그쳐 빠르게 축소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13%에 이를 정도로 친환경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시장 변화에 맞춘 정책 대응과 통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박재선(가운데) KGM 회장이 튀르키예를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누적 판매 5만대를 축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GM 제공>

## '토레스' 질주...KGM, 튀르키예 수출 5만대 돌파

KG 모빌리티(KGM)는 "주요 수출국인 튀르키예 시장에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 5만대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튀르키예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 가족 단위 이동 등 실용적인 측면을 중요시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연료비 절감을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KGM의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성장 시장으로 꼽힌다.

KGM은 튀르키예에 2024년 1만 1122대에 이어 지난해 1만 3337대를 수출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튀르키예는 2024년·2025년 KGM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해 KGM의 전체 수출 물량 중 19%를 차지했다.

차종별로 전동화 모델인 '토레스 EVX' (6722대)와 '무쏘 EV' (1000대)가 많이 판매됐다. 내연기관 차인 '무쏘' (2630대)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KGM은 지난해 지역별로 독일 등 서유럽 지역에 2만 2496대(32%)를 수출했으며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에 1만 9064대(27.1%), 튀르키예 등 중동 지역에 1만 7231대(24.5%)를 판매했다. 국가별로 튀르키예에 이어 헝가리(9508대)와 독일(6213대)이 뒤를 이었다.

KGM은 튀르키예 시장의 판매 상승세를 잇기 위해 신형 '무쏘' 출시와 '토레스 EVX'·'무쏘 EV' 등 전동화 모델에 대한 텔레매틱스(통신+정보+확) 기능 탑재 등 시장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모델 출시를 통해 판매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KGM 관계자는 "박재선 회장의 현장 중심 경영이 수출 물량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7만대 판매를 넘어 11년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 튀르키예는 물론 세계 시장에 무쏘 등 신 모델을 확대하고 신형 시장 개척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강화해 판매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車 세계 전문가들 서울서 기록장치 국제 기준 논의

### 미국·독일 등 10여개국 참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2일부터 4일까지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사고기록장치·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전문가그룹'(EDR·DSSAD IWG) 회의를 서울에서 연다고 밝혔다. <사진>

EDR·DSSAD IWG는 UNECE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 기구에서 사고기록장치와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의 국제기준 제정을 위해 2019년 만든 국제 전문가 그룹이다.

사고기록장치는 사고의 원인 규명과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 전후 차량의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이며,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는 자율주행 기능의 성능 점검·평가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자율주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다.

이번 제30차 EDR·DSSAD IWG 회의에는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10여개 국가의 자동차 사고·자율주행 기술 관련 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비롯해 세계자동차협회, 세계자동차부



품협회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형·화물차용 EDR 국제기준의 성능 인증 방안에 대한 최종 논의가 이뤄지며 DSSAD에 기록되는 자율주행 정보의 기록 조건과 시간·주기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회의에서는 첨단안전장치와 자율주행기능을 기록할 수 있는 EDR의 국제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DSSAD 지침 마련도 병행

중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EDR·DSSAD 제도화 논의를 선도하고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활한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국제기준 마련과 국내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국내 완성차업체 5곳, 설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 엔진·공조장치·냉각수 등 점검

국내 완성차업체 5개 사가 설 연휴를 맞아 무상 점검을 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한국GM, 르노코리

아, KG모빌리티가 오는 11~13일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9~13일로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엔진·공조장치 상태, 타이어 공기압·마모상태, 브레이크·패드 마모도, 냉각수·오일류, 와이퍼 등이다.

현대차·기아 고객은 4일까지 각 브랜드의 고객 서비스 앱에서 무상점검 쿠폰을 발급받은 뒤 전국 블루핸즈, 오토큐 등을 방문하면 된다.

한국GM은 375개 협력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361개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을 수 있다. KG모빌리티는 2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310개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금호타이어, 타이어 구독서비스 '또로로로' 출시

### 4분 월 최저 3800원에 대여

금호타이어는 "렌탈 플랫폼 기업 비에스온과 함께 운영해 온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또로로로'를 올월부터 구독형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또로로로 구독' 서비스는 고객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타이어를 장착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타이어 서비스다.

가입 고객은 소형부터 대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까지 모든 차종의 타이어 4분을 월 최저 3800원에 임대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12개월·24개월·36개월 중에서 운전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 기간, 구매 수량, 타이어 규격, 제

휴 카드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월 이용료는 달라질 수 있다.

금호타이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타이어 위치 교환, 월 월리안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타이어가 손상되면 최대 2분까지 무상 교체해 주는 보상 프로그램 '금호 스마트초이스'도 이용할 수 있다.

김성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타이어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고객들이 번거로움 없이 타이어를 교체하고 점검받을 수 있도록 구독 서비스에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을 담았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구독 서비스 개편을 시작으로 고객 맞춤형 타이어 관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애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장)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